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전자저널 이용행태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계명대학교 의학도서관¹,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²

조화순 · 이영철¹ · 오동근²

Analysis of Medical Library Users' Utilization Behavior of the Electronic Journals

Korea Maritime Institute, Seoul, Medical Library¹,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s²,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Hwa-Sun Cho, Young Cheol Lee¹, Dong-Geun Oh²

▶▶ ABSTRACT ◀◀

Libraries are subscribing to various electronic journals to meet the increased demands of users, which are caused by the changes in information environment. Electronic journals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medical libraries. In medical libraries, electronic journals can be regarded as the core component since they are a major part of the collection with high utilization rate. To analyze the medical library users' utilization behavior and service quality perception of electronic journals, this study has surveyed the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at 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he general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frequent use of information by medical school student was to conduct research project and by medical school faculty was to investigate recent research trends in areas of interest. Both students and faculty used the Internet to acquire information with high preference of academic journals. Second, the study found that users preferred electronic journals and used them more frequently than printed journals. It was shown that journals published within 6 months to a year were used most frequently. Third, it was presented that electronic journal use occurred mostly in laboratories and hospitals and was accessed through medical library homepage. PubMed was the most commonly used database, and the preferred method of data acquisition was printing or saving by downloading. On the other hand, it was shown that materials that were not readily available were obtained either through interlibrary loan or consultation with a librarian. Notably, there was a high rate of task abandonment (i.e., giving up of dataacquisition) among graduate school student population.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tudy found differences between study groups (i.e., faculty and students) in perception of electronic journal quality. The study also found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satisfaction of electronic journal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the perceptionof satisfaction was supportiveness followed by convenience of use and content resources.

Key Words: Electronic Journals, Medical Library, Users' Utilization Behavior

서 론

15세기 중엽 Gutenberg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후 인쇄술의 발달과 르네상스의 근대문화는 17세기 중반 학술저널을 생겨나게 만들었다. 영국왕립학회는 1665년 「철학회보」(Philosophical Transaction)를 출판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프랑스에서 「박학 잡지」(Journal des Sçavans)가 출판을 시작하였다(정필모, 오동근, 1998, p. 117). 이를 시작으로 학술저널은 발전하게 되었다.

학술저널은 최초 연구자들의 의견교환 매체로 사용되어 왔으며, 19세기 말부터 논문투고와 전문가심사(peer review)에 따른 학술저널 배포로 학술정보의 유통구조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점점 더 빠른 출판과 배포를 기대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정보량의 증대와 저널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학술저널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등장은 정보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저널의 발행, 유통, 이용에 이르기까지 학술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학술저널의 매체를 인쇄저널에서 전자저널로 변화하게 만들었으며, 전자저널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전자저널의 발전은 물리적 형태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술저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저널은 출판과 배포의 속도가 인쇄저널보다 빠르며, 전자저널의 접근용이성, 신속성, 통합검색, 정보원간의 연계성, 계속성 등의 장점 때문에 기존의 인쇄저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저널의 이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학술저널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전자저널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의학도서관은 장서의 구성, 정보이용 양상 등에서 전문적인 성향을 가진다. 단행본보다는 학술저널의 보유가 높으며 주제분야에 있어서 의학관련 분야의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도 학술저널 이용의 빈도가 높다. 이용자들은 물리적 도서관 공간을 방문하여 직접 인쇄저널을 찾기보다는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전자저널 이용을 더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김나원(2008), 홍기선(2008), 김나원과 박지홍(2009)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또 이용자들은 전자저널의 선호가 높으나, 그에 비해 도서관 이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는 전자저널을 더 다양하게 구독하게 되었다. 현재 의학도서관들의 핵심장서는 전자저널로 장서구성에서 비중이 높을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전자저널 의존도와 이용률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전자저널의 발달로 대학도서관에서는 전자저널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의학도서관 전자저널 연구는 그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의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인용문헌분석, 이용교육, 서비스모형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의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는 달리 단행본보다 학술저널의 이용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의학도서관의 학술저널 이용에 관한 연구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K대학교 의과대학의 의학도서관 이용자그룹 중 교수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보의 요구에 따른 이용에 있어서 전통적인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의 이용과 선호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저널의 이용행태에 대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자저널 서비

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의학도서관의 서비스개선에 활용될 수 있으며, 전자저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의학도서관 전자저널의 이용행태를 신분에 따른 지각차이를 비교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 및 한계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국내·외 문헌조사로 이론적인 토대를 확립하고, 전자저널 이용행태 및 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5개 분야의 29개 설문항목을 작성하여 2010년 8월부터 9월말까지 2개월간 걸쳐 조사하였다. 의학도서관의 이용자들 가운데 학술활동이 활발한 그룹인 의과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보요구, 학술저널 이용행태, 전자저널 이용행태에 관해 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K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의학도서관 이용자의 전자저널 이용행태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3. 용어 정리

전자저널은 전자매체를 통해 제작, 출판, 배포되는 연속간행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저널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Lancaster(1995)는 전자저널을 넓은 의미로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잡지로 정의하였으나 좁은 의미로는 전자매체로 생산, 이용가능한 잡지라고 정의하였다.

김숙찬(2005)은 전자저널은 인쇄저널의 내용을 전자화하거나, 처음부터 전자화된 형태로 서버에 저장하여, 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저널의 원문(full-text)을 이용할 수 있는 학술저널로 정의하였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학술지는 학술적 논문이나 특정 주제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한 최신 정보가 수록되며, 학회, 협회 또는 학술단체에서 발행된 연속간행물”(한국도서관협회, 2010, p.383), “전자저널은 인쇄잡지의 디지털형식, 혹은 인쇄본이 없는 디지털형식의 연속간행물.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나, 기타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배포되는 경우도 있다. 인쇄잡지와는 그 구독과 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p.291)고 정의되어 있다.

인쇄저널은 프린트저널, 인쇄잡지 등의 용어로 사용되며, 기존의 종이매체로 발행되는 학술저널로 전자저널로 이용 가능한 것도 있다.

전자저널은 전자학술저널, 온라인학술저널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저널은 인쇄저널을 전자화한 것, 또는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의 문서로, 컴퓨터나 통신기기를 통하여 저널의 원문(full-text)을 이용할 수 있는 학술저널로 정의하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구성비(%)
성별		
남자	73	70.9
여자	30	29.1
연령		
20~29세	36	35
30~39세	29	28.2
40~49세	29	28.2
50세 이상	9	8.6
신분		
교수	51	49.5
대학원생	52	50.5
계	103	100

고자 한다.

분석 및 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 연구의 표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70.9%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20~29세가 35%로 가장 많으며, 30~39세, 40~49세가 28.2%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최소연령은 만 22세이고 최고연령은 만 62세, 평균나이는 36.25세로 나타났다. 신분은 교수가 49.5%, 대학원생이 50.5%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레지던트, 인턴,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에 응답한 경우는 대학원생으로 그룹화 하였으며, 전임의와 의학과 교수로 응답한 경우 교수집단으로 그룹화 하였다.

2. 일반사항의 기술통계적 특성

1) 정보이용의 목적: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표 2와 같다.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서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 교수집단에서는 관심분야의 연구동향을 알기 위해 정보를 많이 찾는 경우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구과제 수행결정, 환자진료와 주제분야의 문헌리스트를 위해서가 같이 응답되었다.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과정의 수행이나 결정을 위해 정보를 찾는 경우가 50.0%로 높게 나타나고 최근 연구동향을 알기 위해가 34.6%로 뒤를 이었다. 전체를 기준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된 목적은 최신의 연구동향 파악과 연구과제를 위한 경우가 83.5%로 대다수라고 볼 수 있다.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정보를 주로 입수하는 방법의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정보의 입수방법에 있어서 교수집단과 대학원생

표 2.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연구과제 수행, 결정	18	35.3	26	50.0	44	42.7
최근 연구동향을 알기 위해	24	47.1	18	34.6	42	40.8
환자진료를 위해	4	7.8	3	5.8	7	6.8
특강 주제분야의 문헌	4	7.8	1	1.9	5	4.9
수업준비	1	2.0	4	7.7	5	4.9

표 3.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컴퓨터 이용 인터넷 검색으로	36	70.6	37	71.2	73	70.9
전통적인 도서관 자료 이용	12	23.5	12	23.1	24	23.3
학술회이나 세미나 참석	3	5.9	2	3.8	5	4.9
친구, 동료들로부터	-	-	1	1.9	1	1.0

집단 모두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이나 인터넷으로 정보검색이 각 70.6%, 71.2%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23.5%, 23.1%로 인터넷 이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정보원은 표 4와 같다.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에서 교수는 68.6%로, 대학원생은 50.0%로 두 집단 모두 학술저널을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 단행본의 선호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교수집단은 단행본을 3.9%로 선호도가 낮은 반면, 대학원생은 21.2%로 비교적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 학술저널의 이용행태: 학술저널의 이용빈도에

표 4. 선호하는 정보원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학술저널	35	68.6	26	50.0	61	59.2
인터넷(비학술저널)	11	21.6	11	21.2	22	21.4
단행본, 교과서	2	3.9	11	21.2	13	12.6
학위논문	1	2.0	2	3.8	3	2.9
학회 및 세미나 자료	1	2.0	1	1.9	2	1.9
동료와의 비공식대화	1	2.0	1	1.9	2	1.9

표 5. 학술저널 이용빈도(1개월 평균)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인쇄저널						
1회 미만	10	19.6	19	36.5	29	28.2
1~2	13	25.5	17	32.7	30	29.1
3~4	4	7.8	10	19.2	14	13.6
5~6	11	21.6	4	7.7	15	14.6
7~8	2	3.9	-	-	2	1.9
9~10	8	15.7	2	3.8	10	9.7
11회 이상	3	5.9	-	-	3	2.9
평균(표준편차)	6.59 (12.934)		1.90 (2.337)		4.22 (9.501)	
중앙값	4		1		2	
전자저널						
1회 미만	-	-	5	9.6	5	4.9
1~5	11	21.6	22	42.3	33	32.0
6~10	11	21.6	17	32.7	28	27.2
11~15	5	9.8	-	-	5	4.9
16~20	10	19.6	5	9.6	15	14.6
21~25	1	2.0	-	-	1	1.0
26~30	8	15.7	1	1.9	9	8.7
31회 이상	5	9.8	2	3.8	7	6.8
평균(표준편차)	23.96 (31.568)		9.79 (15.370)		16.81 (25.638)	
중앙값	15		5		10	

대한 분석 결과는 1개월 평균 이용빈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학술저널 이용빈도는 표 5와 같다.

인쇄저널의 경우 교수집단의 경우 1개월 평균 1~2회 이용이 25.5%, 5~6회 이용이 21.6%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19.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이용빈도는 6.59회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집단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2회 이용 32.7%, 3~4회 이용이 19.2%로 나타났다. 평균 이용빈도는 1.90회로 이용빈도에 있어서 교수집단과 대학원생집단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자저널의 경우 교수집단에서는 1~5회 이용, 6~10회 이용이 각각 21.6%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31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도 9.8%로 높게 나타났다. 최소값이 1에서 최대값이 180이며, 중앙값은

15로 평균 이용빈도는 23.96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생집단의 경우 1~5회 이용이 42.3%, 6~10회 이용이 32.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용하지 않은 응답도 9.6%로 높게 나타났다. 최소값이 0에서 최대값이 100이며, 중앙값이 5이고 평균 이용빈도는 9.79회로 나타났다.

1개월 평균 저널의 이용빈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인쇄저널 이용보다는 전자저널의 이용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교수집단과 대학원생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용하는 학술저널의 최신성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저널의 이용에 있어서 교수집단과 대학원생집단 각 33.3%, 42.3%로 모두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표 6. 이용하는 학술저널의 최신성

항목	교수			대학원생			계		
	빈도	%	누적%	빈도	%	누적%	빈도	%	누적%
6개월 이내	4	7.8	7.8	6	11.5	11.5	10	9.7	9.7
6개월~1년 이내	17	33.3	41.1	22	42.3	53.8	39	37.9	47.6
1~2년 이내	7	13.7	54.8	6	11.5	65.3	13	12.6	60.2
2~3년 이내	6	11.8	66.6	6	11.5	76.8	12	11.7	71.9
3~5년 이내	10	19.7	86.3	9	17.3	94.1	19	18.4	90.3
5~10년 이내	4	7.8	94.1	3	5.9	100.0	7	6.8	97.1
상관없음	3	5.9	100.0	-	-	-	3	2.9	100.0
계	51	100	100	52	100	100	103	100	100
평균(표준편차)	2.94 (2.673)			2.50 (2.431)			2.71 (2.547)		

표 7. 학술저널의 형태별 선호도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인쇄저널 매우 선호	-	-	1	1.9	1	1.0
인쇄저널 선호	3	5.9	1	1.9	4	3.9
같다	3	5.9	9	17.3	12	11.7
전자저널 선호	18	35.3	15	28.8	33	32.0
전자저널 매우 선호	27	52.9	26	50.0	53	51.5
평균(표준편차)	4.35 (.844)		4.23 (.942)		4.29 (.893)	

를 살펴보면 5년 이내 저널 이용이 각각 86.3%, 94.1%로 나타나 최신 저널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저널과 전자저널 중 선호하는 정보원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7과 같다.

선호하는 저널의 유형에서 전자저널을 선호하는 경우가 각 88.2%, 78.8%로 인쇄저널보다 전자저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저널을 선호하는 경우도 4.9%가 있었는데 교수집단에서 5.9%, 대학원생집단에서 3.8%로 나타났다. 5점 척도 바꾸어 비교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4.23 이상으로 전자저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인쇄저널을 선호하는 5명을 대상으로 인쇄저널

을 선호하는 이유를 묻은 결과 표 8과 같다.

교수집단에서는 인쇄저널이 익숙하여 인쇄저널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57세, 51세의 연령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자저널 보다 인쇄저널이 더 익숙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저널을 선호하는 87명을 대상으로 전자저널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 다음 표 9와 같다.

전자저널을 선호하는 이유로 전자저널이 인쇄저널보다 검색의 다양성 등으로 편리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57.0%로 가장 높았고, 전자저널이 접근시간, 장소의 제약이 적기 때문이라고 응답이 36.0%로 나타났다.

표 8. 인쇄저널 선호이유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인쇄저널이 익숙해서	3	100	-	-	3	60
인쇄자료 접근이 쉬움	-	-	2	100	2	40

표 9. 전자저널 선호이유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전자저널로만 제공	-	-	2	4.9	2	2.3
전자저널이 편리(검색)	30	66.7	19	46.3	49	57.0
접근장소, 시간이 편리	12	26.7	19	46.3	31	36.0
다양한 정보제공	3	6.7	1	2.4	4	4.7

표 10. 전자저널에 대한 지식정도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 모른다	-	-	2	3.8	2	1.9
모른다	2	3.9	12	23.1	14	13.6
보통이다	27	52.9	29	55.8	56	54.4
잘 알고 있다	15	29.4	9	17.3	24	23.3
매우 잘 알고 있다	7	13.7	-	-	7	6.8
평균(표준편차)	3.53 (.784)		2.87 (.742)		3.19 (.829)	

전자저널을 검색, 접근 및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지식정도는 어떠한지 스스로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표 10과 같다.

전자저널에 대한 자신의 지식정도를 보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52.9%,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보다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교수집단에서는 43.1%, 대학원생의 집단에서는 17.3%로 자신의 지식정도에 대한 평가하였다. 평균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3.53과 2.87로 신분간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집단에서는 자신의 지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학원생집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전자저널의 이용행태: 전자저널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교수집단에서는 도서관 이용교육과 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각각 27.5%로 같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검색을 통해, 주변인의 추천과 도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대학원생의 경우 도서관이용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경

우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변인의 추천, 도움이 26.9%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중 기타응답은 대학교육에서 전자저널 이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전자저널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항목의 응답결과 표 12와 같다.

교수집단의 경우 연구실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병원,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나타났다. 교수집단은 교외이용의 빈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두 교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집단의 경우 병원에서 이용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구실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30.8%로 나타났다. 대학원생도 대부분 교내에서 이용이 이루어졌으나 교외이용이 3.8%가량 나타났는데 교외장소로 집을 꼽았다.

전자저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속을 시작하는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3과 같다.

교수집단의 경우 의학도서관을 처음 접속하는

표 11. 전자저널의 인지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도서관 이용교육	14	27.5	24	46.2	38	36.9
주변인의 추천, 도움	9	17.6	14	26.9	23	23.3
도서관홈페이지	14	27.5	9	17.3	23	22.3
인터넷검색	12	23.5	4	7.7	16	15.5
기타	2	3.9	1	1.9	3	2.9

표 12. 전자저널 이용장소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연구실	39	76.5	16	30.8	55	53.4
병원	7	13.7	20	38.5	27	26.2
도서관	3	5.9	9	17.3	12	11.7
이외의 교내	2	3.9	5	9.6	7	6.8
교외	-	-	2	3.8	2	1.9

경우가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동산도서관이 13.7%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학도서관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들을 살펴보면 다른 규모가 큰 대학이나 병원도서관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Google이나 PubMed로 바로 접속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의학도서관 홈페이지가 전자저널을 이용을 위해 처음 접속하는 곳으로 중요한 접근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링크정보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의학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알기 위한 항목의 응답결과는 표 14와 같다.

교수집단에서는 92.2%로 PubMed를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Google Scholar가 5.9%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집단에서도 80.8%로 역시 PubMed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Ovid Medline, Google Scholar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전공관련학회를 이용하거나 RISS, KISS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전자저널 접속시작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K대학교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37	72.5	35	67.3	72	69.9
K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7	13.7	5	9.6	12	11.7
부속 의료원 홈페이지	2	3.9	4	7.7	6	5.8
기타	5	9.8	8	15.4	13	12.6

표 14.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PubMed	47	92.2	42	80.8	89	86.4
Google Scholar	3	5.9	3	5.8	6	5.8
Ovid Medline	1	2.0	3	5.8	4	3.9
각 출판사 검색엔진	-	-	1	1.9	1	1.0
국내 검색엔진	-	-	1	1.9	1	1.0
기타	-	-	2	3.8	2	1.9

표 15. 입수자료의 처리방법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다운로드, 저장	32	62.7	20	38.5	52	50.5
다운로드, 프린트	13	25.5	26	50.0	39	37.9
온라인상에서 읽기	4	7.8	4	7.7	8	7.8
북마크, 즐겨찾기	2	3.9	1	1.9	3	2.9
Alerts 등록	-	-	1	1.9	1	1.0

입수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항목의 응답결과는 표 15와 같다.

입수한 자료를 다운로드한다는 응답이 전체 88.4%로 높게 나타났다. 다운로드하여 저장한다는 응답이 교수집단, 대학원생집단에서 각각 62.7%, 38.5%로 나타났다. 다운로드하여 프린트한다는 응답은 25.5%, 50.0%로 나타났다. 교수집단에서는 저장하는 방법을 좀 더 선호하였으나 대학원생들은 프린트하는 방법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자저널 종수에 대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저널의 종수를 확인한 결과 교수집단에서는 5~6종이 25.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1~2종, 3~4종의 이용이 17.7%로 나타났다. 9~10종, 11종 이상을 이용하

는 경우도 13.7%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저널의 종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20종까지 있었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저널이 없는 경우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3~4종이 26.9%, 1~2종의 이용이 23.1%, 5~6종의 이용이 13.5%로 나타났다. 9~10종을 이용하는 응답은 1.9%로 대학원생의 경우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저널이 교수집단에 비해서 이용이 적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저널 서비스에서 입수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7과 같다.

입수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한 대응방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집단의 경우에는 상호대차신청이 47.1%, 도서관의 담당자에 문의 41.2%, 직접 구입한다는 응답이 2.0%로 입수를 위해 적극

표 16. 정기적 이용 전자저널 종수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없음	4	7.8	18	34.6	22	21.4
1~2	9	17.7	12	23.1	21	20.4
3~4	9	17.7	14	26.9	23	22.3
5~6	13	25.5	7	13.5	20	19.4
7~8	2	3.9	-	-	2	1.9
9~10	7	13.7	1	1.9	8	7.8
11종 이상	7	13.7	-	-	7	6.8
평균(표준편차)	6.35 (5.733)		2.17 (2.158)		4.24 (4.780)	
중앙값	5		2		3	

표 17. 입수불가능한 자료에 대한 대응방법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상호대차	24	47.1	17	32.7	41	39.8
담당자 문의	21	41.2	19	36.5	40	38.8
포기	5	9.8	14	26.9	19	18.4
직접 구입	1	2.0	-	-	1	1.0
기타	-	-	2	3.8	2	1.9

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응답이 90.3%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경우 36.5%, 상호대차를 신청하는 경우 32.7%로 69.2%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포기하는 경우가 교수집단은 9.8%이지만 대학원생집단은 26.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 자료의 이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결과는 표 18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수집단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37.3%,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9.2%, 보통이 21.6%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집단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40.4%,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8.5%, 보통이 17.3%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을 보면 필요하다는와 매우 필요하다는 각각 38.8%, 보통이 19.4%로 이용교육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비교해 보아도 두 집단 모두 4.13점 이상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 이용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은 표 19와 같다.

의학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9.2%, 30.8%로 교수집단, 대학원생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EndNote와 같은 논문, 참고문헌 작성법에 관한 교육이 33.3%, 21.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검색법, 도서관 및 홈페이지 이용교육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5항목 모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론

교수집단과 대학원생의 집단의 이용목적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교수집단은 최근의 연구동향을 알기 위함이 더 높았으며, 대학원생집단은 연구과

표 18. 이용교육의 필요성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	-	-	-	-
필요하지 않음	1	2.0	2	3.8	3	2.9
보통	11	21.6	9	17.3	20	19.4
필요함	19	37.3	21	40.4	40	38.8
매우 필요함	20	39.2	20	38.5	40	38.8
평균(표준편차)	4.14 (.825)		4.13 (.841)		4.14 (.829)	

표 19. 필요한 이용교육 내용

항목	교수		대학원생		총계	
	빈도	%	빈도	%	빈도	%
의학 DB활용법	20	39.2	16	30.8	36	35.0
논문 작성법	17	33.3	11	21.2	28	27.2
정보검색법	9	17.6	10	19.2	19	18.4
이용교육	3	5.9	8	15.4	11	10.7
컴퓨터 교육	1	2.0	2	3.8	3	2.9
기타	1	2.0	5	9.6	6	5.8

제 수행, 결정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생은 수업을 위한 준비, 논문 등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컴퓨터를 통한 검색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도서관자료라는 의견이 높았으나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보의 입수방법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참고하는 정보원은 두 집단 모두 학술저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하지만 대학원생집단은 단행본의 이용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용목적에 비추어보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학술저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술저널의 이용에 대해 비교한 결과, 교수집단과 대학원생집단의 학술저널 이용빈도에서 교수집단의 이용이 대학원생집단의 이용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술저널의 매체에 관계없이 교수집단의 학술저널 이용이 대학원생보다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전자저널을 인쇄저널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1년 이내의 학술저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이내 학술저널 이용이 70%이상을 차지하였다. 정보이용의 가장 큰 목적은 최근의 연구동향을 알기 위한 것으로 학술저널의 이용에서도 최신의 저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술저널의 형태별 선호도에 있어서는 인쇄저널보다는 전자저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저널을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특히 교수집단에서 50세 이상 응답자가 인쇄저널을 선호하는데, 이는 전자저널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인쇄저널을 사용하였기에 익숙함 때문에 인쇄저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들은 전자저널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저널의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저널을 처음 이용한 것은 교수집단은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해서였고, 대학원생집단은 도서관이용교육이 계기가 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도서관의 이용교육이 전자저널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저널 이용장소는 교수의 경우 연구실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학원생은 병원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생은 학업과 동시에 병원의 레지던트 과정에 있으므로, 병원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자저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수집단과 대학원생집단 모두 의학도서관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두 집단 모두 PubMed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생집단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폭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 교수집단은 제한적인 데이터베이스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험에 의해 PubMed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전자저널은 교수집단은 평균 6.35종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생집단은 2.17종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집단은 전자저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응답이 34%이상으로 나타나 전자저널 이용이 좀 더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입수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교수집단은 입수에 적극적이지만 대학원생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대학원생집단은 상호대차나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보다는 바로 입수가 가능한 대체자료를 찾는 것으로 생각되며, 교수집단은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저널 이용에 있어 자신의 지식 정도를 평가하였을 때 교수집단에서는 평균 3.53으로 보통이상으로 평가하였으나, 대학원생의 경우 2.87로 보통이하로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4.13 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이용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 활용법, 논문작성법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교수집단은 전자저널을 이용과, 원하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대학원생집단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정보의 이용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저널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교수집단과 대학원생집단의 지각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용행태에 대한 문항과 서비스품질차원을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K대학교 의학도서관의 이용자 중 의과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신분에 따른 이용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참 고 문 헌

계명대학교 의학도서관. (n.d.). 2010년 11월 24일 인용.
<http://medlib.dsmc.or.kr/>
 광병희. (2004).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257-281.

김나원. (2009). 국내 의학도서관 이용교육 현황과 프로그램 개발. 의학정보관리, 36(1-2), 24-31.
 오동근, 김숙찬. (2006). 대학도서관 전자저널이용자의 이용행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K대학교 도서관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3(4), 129-146.
 오동근. (2005). 공공도서관의 서비스품질이 이용자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관리학회지, 22(4), 61-78.
 윤구호, 이영철. (1991). 의학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8, 61-90.
 이명희. (2004). 대학의 전자저널 서비스 이용실태와 만족도 향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이연주. (2009). 의학도서관 이용자교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영철. (1991). 효율적인 상호대차를 위한 국내의학잡지의 인용문헌 분석.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 18(1-2), 1-46.
 이지영. (2004). 이용자특성과 탐색서비스 특성에 따른 대학도서관 전자저널의 이용자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이진영, 정상경. (1999). 醫學專門司書의 情報利用行態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2), 123-153.
 정필모, 오동근. (1998). 도서관문화사.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조찬식, 한혜영. (2005). 웹페이지를 통한 의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실태조사. 정보관리학회지, 22(2), 87-101.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동 협회.
 Kaplan, R., Steinberg, M., & Doucette, J. (2006). Retention of retrospective print journals in the digital age: trends and analysis.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JMLA, 94(4), 387-393.
 Lancaster, F. W. (1995). The evolution of electronic publishing. Library Trends, 43(4), 518-527.